

다산포럼



전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4년, 이 사건의 아슬라한 기억을 일깨우는 영화 '서울의 봄'이 수백만 시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따뜻한 봄이 아닌 추운 겨울,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불과 9시간 동안 일어난 군 내부의 권력 투쟁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진정한 군인의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듯이 이 사건은 한국의 1980년대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결정할 것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배반하고 군사독재를 연장시킨 분기점이었다. 어쩌면 당시의 사회구조가 군사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급진적 이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날의 군부 쿠데타는 1961년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 명분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쿠데타의 주인공들은 곧바로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시간과의 지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또 다른 명분이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봄'과 예외의 상황의 창출이었다. 지금도 1980년 5·18이 이들의 전략적 선

‘서울의 봄’, 그 겨울의 겨울

택의 산물이었는가에 관한 논쟁이 잠복하고 있지만, 이들은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생명과 유력 정치인들의 명예를 희생양으로 삼아 현실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들은 진실의 세계를 장악하지 못했다. 이들을 심판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들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되었고, 오히려 흉한 허물로 남았다.

이 영화는 당시의 사건에서 진짜 영웅이 누구였는지를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단지 44년 전의 과거를 회상하고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직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책임의 문제, 즉, 처벌과 용서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군부 독재가 또 다른 유형의 독재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하게 된다.

이 영화의 주인공 중 하나인 전두환 소장은 1997년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지만, 곧바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그가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12·12와 5·18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진실을 부인했다. 그 대가는 준엄했다. 사후에도 그는 갈 곳이 없었다. 사실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에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는 사죄를 통해 사후에 안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은 셈이었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다. 용서가 꼭 사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올해 초에 광주에서는 사죄와 용서의 관계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은 5·18 당시에 진압군으로 출동한 병사들이 가해자인가, 아니면 이들도 단지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던 넓은 의미의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사죄를 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조건부 용서론과 용서가 사죄를 불러온다는 무조건적 용서론간의 갈등이기도 했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이 논쟁을 통해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응보적 정의에 관한 관념이 강력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2·12 쿠데타는 신군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사적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비대해지고, 5·16 쿠데타를 통해 핵심적 권력기구로 성장한 군을 어떻게 정상적 위치로 되돌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적 과제는 무소불위의 핵심적 권력기구들을 민주적 가치와 법에 종속시켜 국민적 통제의 대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었다. 부족했던 국민들의 역량은 5·18을 겪으면서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민주화와 함께 문민통제와 법치주의가 뚜렷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이 성취의 틈새에서 자라났으니, 그것이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의 권력기구화이다.

영화 '서울의 봄'은 당시의 국가적 불행이 보안사령부로의 권력 집중의 결과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현재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듯 하다.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횡행하는 권력의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경고, 또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아닐까.

청춘 특특



정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1년

나는 어릴 적부터 질문하기를 두려워했다. 무언가를 질문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질문 있나요?”라는 물음에 늘 답하지 못하고 타이핑을 놓치기 일쑤였다. 그렇게 때를 놓친 후에 자신을 질책하고는 했다. 참고 참다가 정말 모르겠을 때 입을 달싹거리는 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그렇다고 나는 내성적인 사람도,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렇게 질문을 삼키는 것에 익숙해질 때쯤 나는 새로운 습관을 또 하나 얻었다. ‘어차피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어.’ 합리화로 질문하지 못한 나를 두둔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실제로 모르

질문할 수 있는 용기

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입을 열기가 더 어려워짐을 경험했고, 결과적으로 내가 얻는 것은 제로도 아닌 마이너스에 수렴했다.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에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혼자 씨름하다 제풀에 나가떨어지기 마련이었다. 당연히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했고 내가 만들어 낸 상황에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정말 나에게 남는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일 때쯤 난 질문 삼키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덜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지 정리하고 또 정리했다.

하지만 내가 걱정할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나의 질문 한 가지에 열 가지의 해답을 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 질문을 우스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까지나 망설인 나 자신이야말로 우스워지는 순간이었다.

내성적이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주저하고 타이핑을 놓치는 경험은 많은 이들이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고민과 망설임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도움과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또한, 혼자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학습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통해 어떤 도전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닌 현명함과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는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잘하지 못했다. 아마 같은 이유에서 질문도, 도움도 피했을 것이다. ‘질문’으로 글의 물꼬를 댔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도움받기를 주저하지 말자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엔 혼자서 성장할 수 없다. 그 도움을 통해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또 다른 ‘나’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주면 된다.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며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며, 그것이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여정을 이끌어낼 것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만 성장하리란 법은 없다. 우리는 분명 서로를 통해 배운다. 어떠한 질문이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삶의 큰 버팀목이 돼줄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나만의 새로운 가능성 찾아가고자 한다.

기고



차노희
소설가·도보여행가

서핑에 확실히 빠졌다. 올해가 있는 제주 해변을 걸으면서, 텔어비고 고층 빌딩이 보이는 야바 해변에서 김치 탄 서핑족들이 서핑 보드를 들고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배워야지’ 라며 막연한 생각을 했다. ‘언젠가는’이 그저 막연한 날짜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배우는 것에는 하루라도 먼저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라, 집하고 가까운 곳을 검색했다.

고흥 남열해수욕장 서핑 샵이 네이버에서 검색되었다. 집에서 거의 두 시간 거리.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1회 강습에 6만 원. 한 시간 정도 이론 강의. 한 시간 바다에서 실전. 그리고 자유 연습. 3회 권을 끊었다. 그렇게 해서 서핑에 입문한 날은 지난 10월 3일이었다. 일 때문에 공휴일에만 시간을 낼 수 있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습 날은 1박 2일 캠프를 했다.

첫날, 강사가 보드를 밀어주긴 했지만 보드에서 일어서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파도 타임 익히고, 보드에 엮드려서 팔을 휘젓는 패들 연습 등등. 한여름에 에어

삶의 활력은 내 욕망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

전 아래만 있었던 나는 제법 잔잔한 파도에 동승하면서 살갓을 태웠다. 일주일 뒤 찾은 2회 강습 때는 파도가 미친 듯이 아우성을 쳤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패들을 하면서 라인업(남열해수욕장에서는 가슴 정도 차오르는 곳) 가는 것도 힘들었다.

파도가 나를 내팽개쳐 치고 쳤다. 거친 파도를 잘 타는 것을 옆 강습생이 가르쳐주었다. 초보자에게는 힘든 파도였다. 강습이 끝나 갈 즈음 보드에서 일어서는 데 이코오프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큰 좌절감에 싸였을 것이다. 강사가 이런 파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했다. 그 다음 날 다소 순해진 파도가 나를 씩씩 잘 밀어주었다. 포스가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절반 정도는 파도에 얹어져서 스타일을 구겨야 했다.

남열해수욕장은 10월 15일이 강습 시즌 마지막 날이었다. 한 주 남은 주말에 다시 두 타임을 신청할까 했는데, 작은 이변이 생겼다. 제주도가 나를 불렀다. 제주도 올레를 두 번 완주한 뒤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던 그곳이, 서핑을 시작한 뒤로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일사천리로 제주 모 서핑센터에 5일 강습을 계획하고 비행기, 숙박, 서핑 센터 등을 예약해버렸다. 내친 김에, 겨울 방학 동안 발리에 있는 서핑 스킨에 40일 일정으로 등록했다. 서핑이라는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었다.

이렇듯 ‘나를 태우는 뭔가’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삶의 활력이라면 긍정적 마인

드를 유지시키는 내 방법이기도 하다. 2023년 10월에는 서핑으로 다가왔고 2023년 1월 13일에는 크로스핏이었다. 2018년에는 스쿠버다이빙이었고 2017년에는 수영이었다. 크로스핏을 시작한 계기는 도보 여행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고까지 한 적이 있다.

여전히 나는 크로스핏러이며 도보여행가이다. 여행 또한 삶의 활력이기 때문이다. 매순간 내게 활력을 주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그것을 실행했다. 태생적으로 새로운 것에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행운인 것은 그것을 실행할 체력과 정신력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매력을 느끼고 실행하는 것은 나이와는 상관없다. 다만 ‘건강’ 해야 한다. 건강은 단박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실천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아프기 전까지는 간과하기 쉬운 것이 건강 관리이다.

건강관리는 건강한 먹거리, 규칙적인 운동 등 여러 매뉴얼이 있지만 내가 제일 먼저 꼽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격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2023년 마지막 달에 나는 한 해를 돌아보며 증도 열도라도에서 가슴 속 울림에 온전히 시간을 내주고 있는 것이다.

社說

총선에 발목잡힌 달빛철도 연내 처리 이뤄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총선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역대 최대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인데도 국회 논의 첫 관문인 법안 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바람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법안 소위원회도 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결과다. 역대 최대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이라 무난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첫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등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원인이다. 정부 부처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께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계

획이지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표결까지 남은 절차가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힘들다. 일부 의원들은 추가 논의는 물론 공청회 개최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당초 요구했던 ‘복선·고속철도’를 접고 ‘복선·일반철도’로 양보하기까지 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든 정부 반대 논리에 대응해 2조 5889억원이 적게 드는 일반철도 건설안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철도도 건설하더라도 정착역이 많아 고속철도 건설에 비해 운영 시간이 2분여 밖에 차이 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을 수용한 조치였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원안을 고집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국회 첫 관문부터 좌절된 태도를 보인 것이 원인이다. 정부 부처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께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계

가축전염병 확산에 방역인력 부족 우려된다

전남에서 소바이러스 질병인 람피스킨병에 이어 조류독감(AI)까지 확산하고 있어 농가들이 초긴장 상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무안군 일로읍의 한 오리농가(오리 1만 6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지난 4일 고흥군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올 겨울 첫 AI가 발생한 지 이틀만이다. 지난 10월께 무안군과 신안 등 한우농장 2곳에서 람피스킨병이 발생, 반경 10km를 가축이동 금지 구역으로 묶는 등 방역대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전염병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람피스킨병과 AI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방역 최일선을 맡고 있는 전남지역 방역 요원들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 방역 직원은 정월 74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68명뿐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사·군에 근무하는 방역 요

원을 가축 질병 발생지역으로 불러모아 댐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 질병이 늘고 있음에도 신규 인력 채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방역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본부는 지난 2019년 26명, 2020년 6명, 2021년 8명, 2022년 5명의 방역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농장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의 경우 전남은 의사 1인당 107.4개 농장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가축 검역과 방역 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방역 최일선에서 뛰는 현장 인력을 서둘러 증원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지쳐가고 대응력이 떨어지면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국과 자치단체는 방역 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내 눈 앞에서,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 하나 없다는 게 그게 군대냐!”

개봉 20일 만에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 역)은 전세가 반란군 쪽으로 기울었지만 쿠데타에 끝까지 저항한다. 실제로 1979년 12·12 당일 수도경비사령관(장태완)과 특전사령관(정병주), 육군 헌병감(김진기)만이 고립무원(孤立無援)으로 반란군의 대척점에 서있을 뿐이었다.

12·12는 당초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수장인 전두환이 자신을 한직으로 보내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발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훗날 연구에 따르면 10·26 이후 전두환과 하나회는 정권 전탈에 이르는 쿠데타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12·12반란→전두환 중앙정보부 부장서리 취임(1980년 4월)→5·17조치(전국으로 계엄 확대)→5·18 살육→최규하 대통령 퇴임(8월 16일)·전두환 대통령 선임(8월 27일)으로 이어지는 '다

단계 쿠데타'로 규정했다.

영화에서는 한 컷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장면이 있다. 영암 출신인 고(故) 정선열(1956-1979) 병장이다. 광주 동신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재학중 입대했던 그는 12월 13일 새벽 국방부 제50헌병대 소속의 전역을 3개월 앞둔 병장이었다. 국방부 B2 버거를 후임대신 자원해 지키던 그는 “중대장님의 지시 없이는 절대 총을 쏠 수 없다”며 쿠데타에 동원된 공수부대에 저항하다 사살됐다. 신군부는 사후

병장 정선열

에도 정 병장의 죽음을 ‘계엄군 증가 인원과외에 의한 총사각’로 보내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발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훗날 연구에 따르면 10·26 이후 전두환과 하나회는 정권 전탈에 이르는 쿠데타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12·12반란→전두환 중앙정보부 부장서리 취임(1980년 4월)→5·17조치(전국으로 계엄 확대)→5·18 살육→최규하 대통령 퇴임(8월 16일)·전두환 대통령 선임(8월 27일)으로 이어지는 '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실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전남본부	220-068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